"전북발전 공통 목표 현실로"

도-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발전 위해 머리 맞대… 16개 기관장 모임, 분기별 정례화

전북도를 비롯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해 온 공공기관들이 앞으로 더욱 유기적이고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에 힘을 모으기 위해 각 기관장들이 정례적으로 모여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그랜드힐스턴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농수산대학교, 한국식품연구원 등 8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장 모임인 '온빛회'를 갖고 모임을 더욱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

지난 2016년에 결성된 공공기관장 모임인 '온빛회'는 2023년 현재 모두 16개 기관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4년만에 이날 간담회를 갖게 됨에 따라 분기별 개최로 정례화하는 등의 회칙 개정,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 받는 시간으로 꾸려졌다.

13일 전주그랜드힐스턴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농수산대학교, 한국식품연구원 등 8개 공공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발전에 힘을 모으기 위해 조찬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회장을 맡고 있는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 관련기관 홍보 및 공부변경 출범전 정비 완료, △기관별 기능과 연계된 공공기관 2차 이전대상기관의 지역유치 등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온빛'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공공기관장들이 전북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입을 모았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와 전주시, 완주군, 이전공공기관이 큰 꿈, 하나의 꿈이라는 의미의 '온빛'을 실현해 우리 전북이 경제 침체와 소멸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혁신도시를 지속발전 가능한 곳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전북도의 강점과 특성을 살린 특별자치도 특례 반영과 새로운 먹거리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힘을 더욱 한데 모아 달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민사랑제도 가입 범위 늘려야"

도의회 행자위, 기획조정실 등 대상 회계연도 결산 심사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13일, 제401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북도 기획조정실·소방본부 등 소관부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먼저, 김이재 위원장(전주4)은 서신 119안전센터 준공 지연으로 집기비품 구매예산을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하고도 집행하지 못해 불용처리 한 것은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도면밀하지 못한 결과라며 추후 불용처리하고 다시 편성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예산편성업무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는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문제점으로 판단된다며,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면밀한 예산심사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집행 불가능한 예산 미반영 등 적정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처리 계획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송승용 의원(전주3)은 인구정책개발 및 활성화 사업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추가 편성하였으나 일부는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까지 발생하는 한편 뚜렷한 성과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예산 편성 시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전북도민사랑제도와 관련해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를 살펴보면 지난 5월 가입자가 이미 30만명을 넘어섰고 100만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공격적인 홍보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혜택과 가입범위를 확대,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8억3,410만1,000원 초과된 것은 예산편성 시 보수적으로 세입을 추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재정 운영의 비효율로 이어지므로 세입 여건을 정확히 분석해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전북은행의 예대마진이 전국 최고수준인데다 전라북도 금융중심지 선정과 관련해 JB금융지주가 지역은행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우리 도민들이 키워준 전북은행이 전북지역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은 예산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대부분 지표에서 실적에 비해 목표가 현저히 낮게 설정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초과달성이 분명히 예상되는 지표에 대해서도 목표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적절한 목표설정을 통해 예산 성과관리예산이 실효성이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재훈 기자

민주 "혁신위원장 14일 최고위원회의서 발표"

이래경 인사 논란으로 물러나 정근식·김은경 최종 후보로 인사검증 절차 거쳐 내세운 듯

일각서 계파 구도 보는 시각도 비명계서 추천 김태일은 제외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원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이 '천안함 자폭' 표현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이후 9일 만이다.

복수의 지도부 소속 의원은 13일 뉴시스와 만나 "내일 혁신위원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도부는 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20여명의 혁신위원장 후보를 추천받은 바 있다. 이후 내부 절차를 거쳐 외부 인사인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과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최종 후보로 추렸다.

최근 들어서는 정 교수와 김 교수의 2파전 구도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두 후보에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맡길 수 있다는 말도 돈다.

특히, 정 교수와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역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앞서 이 이사장이 인사 논란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사 검증 절차를 거친 후보를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혁신위원장 인선을 계파 구도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두 후보가 친명·친문계에서 선호하는 인물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김 전 총장은 비명계에서 적극 추천한 후보이기도 하다. 다른 후보에 비해 민주당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총장은 비교적 최근까지 언론 기고를 통해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반대로 정 교수와 김 교수는 정무적 판단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혁신위가 꾸려진다면 대선·지선에 대한 평가와 반성,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 체제 1년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정당 전문가 등 정당을 아는 사람, 정치를 아는 사람 이런 식으로 압축이 될 텐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지금 거론되는 세 명 중에는 김태일 교수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尹, 19~24일 프랑스·베트남 순방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19~24일 프랑스와 베트남 순방에 나선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김 차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총회 1일 차인 20일에는 2030 등록박람회 경쟁국 프레젠테이션((PT) 행사에 참석하고 2일차인 21일에는 우리가 주최하는 2030세계박람회 공식 리셉션에 참석해 각국 대표단과 외교단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펼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프랑스 방문에 맞춰 20일에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2일에는 베트남으로 건너가 24일까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23일에는 윤 대통령은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공식 환영식, 한-베트남 정상회담 등 공식 국빈일정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같은날 응우옌 푸 쫑 당 서기장, 팜 밍 찡 총리, 브엉 딩 후에 국회의장 등 베트남의 최고지도부 전원과 개별적 면담을 갖는다. /뉴시스

농산경위 "사업 계획시 소요예산 예측 신중해야"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13일제401회 정례회 기간 전북도 미래산업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먼저, 나인권 위원장(김제1)은 "R&D 기관 연구원 주거비 지원사업 및 뿌리산업 생태계 혁신성장 지원 사업의 예산이 20%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며 "사업계획시 소요예산을 신중하게 예측해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강조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검토결과 부안 신재생에너지 단지 시설보강사업 등 8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된다."며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돼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지원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성장동력 국책사업 기획용역과 관련해 전년도 예산 3,400만원을 이월하고 본예산에 1억5,000만원을 편성했으나 50% 밑도는 수준을 집행하여 명시이월을 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후 본예산 편성 시 이러한 관행을 지양할 것"을 강조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출연금 정산 이월 현황 검토 결과 테크노파크 R&D 기관 주거비 지원과 자동차융합기술원 뿌리산업 생태계 혁신성장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비율이 높다."며 충분히 예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계획을 세울 때 해당부분을 예측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점을 질타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당초 5월에 이미 개소해 운영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기되고 있어 국비를 반납해야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며 "1,5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다음 회기까지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